

안철수 본격 정치 행보... '혼외아 의혹' 채동욱 낙마



안철수



김무성



권은희



류현진



조용필

◆ 특별

◇박근혜 대통령=2월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올랐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부녀(父女)가 모두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는 진기록도 세웠다. 취임 후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 삼고 분야별 세부 국정과제를 설정해 국정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이를 위한 재원확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취임 첫째 내내 인사 난맥상에 시달려야 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지난 대선 이후 미국에서 칩거하다 3월에 귀국, 4·28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 병에 출마, 당선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최근 새정치추진위원회를 만들며 창당 행보를 본격화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다. 지방선거 전에 얼마나 새롭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영입할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누리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좌장으로 4·24 재선거(부산 영도)를 통해 5선 의원으로 여의도에 재입성했다.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백의종군 선언으로 불출마를 선택한 뒤 곧바로 금의환향했다. 국회 재입성 차기 대권주자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뇌부의 은폐·축소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경찰 간부공무원이다.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5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전 과장의 폭로로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회의 공방이 뜨거웠으며,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모든 이슈가 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임한 손

경식 회장의 후임으로 8월 대한상공회의소 임시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임됐다. 세계 경제 불황이 지속하고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내 최대 종합경제단체의 수장을 맡아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 그룹은 박용만 회장을 포함해 4명의 상의 회장을 배출하게 됐다.

◇가수 조용필=올해 데뷔 45주년을 맞은 '가왕(歌王) 조용필(63)'이 10년 만에 발표한 19집 '헬로(Hello)'가 선풍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지난 4월 발매된 19집 수록곡 '헬로'와 '바운스'(Bounce)가 중견 가수의 곡으로는 이례적으로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으며, 발매한 달여 만에 앨범 판매량은 20만 장을 돌파했다. 조용필은 '바운스'로 23년 만에 지상파 방송사 가요 프로그램 1위도 석권했다.

◇류현진=메이저리그 입성 첫째해 14승8패 방어율 3.00을 기록하며 미국도 인정하는 '에이스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LA다저스 팀내 다승 3위로 정규시즌을 마쳤다. 포스트시즌에서도 3선발 역할을 하며 10월15일 세인트루이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의 후투로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선발승을 기록했다.

◇손흥민=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명문' 바이에른 레버쿠젠에서 뛰는 공격수로, 11월 9일 함부르크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하며 한국 축구사에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손흥민의 헤트트릭은 지금까지 유럽 빅리그 무대에 진출한 한국 선수 가운데 정규리그에서 처음 달성한 대기록이다.

◇발레리나 김수진=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발레리나.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대지 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의 후임에 내정됐다. 강씨는 자신이 수석무용수로 있는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서의 활동 등을 마무리한 뒤 2주간 귀국해 임명 절차를 밟는다.

■ 진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헌정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는 현역 의원으로 기록되며 정국에 파문을 일으켰다. 올해 8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의 수사를 받으며 '중독논란'의 중심에 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낙점돼 지난 4월 4일 제39대 검찰총장으로 올랐지만,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9월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도 낙마했다. 검찰 조직을 과감한 개혁과 결단력으로 안정 제도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정원 수사 등으로 인해 청와대와 여론 내에서 채 총장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결국 '찍어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로, 퇴임 이후 인터넷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으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7월 10일 건설업자로부터 여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창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승승장구하며 공공 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사장까지 올랐으나 11월 일본 안마업소 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새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 기대 속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200여 일 만에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의견 충돌을 빚고 물러났다.

◇김중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새 정부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수장으로 내정됐다. 낙마했다. 김씨는 지난 2월17일 새 정부가 임명을 두고 신실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 전직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후보자 내정 이후 시민권 포기 문제와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상근 자문위원 활동 전력, 국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 제기

되자 전직 사퇴했다.

◇이석재 전 KT 회장=5년간 국내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KT를 이끌며오다 지난 11월 12일 검찰수사를 받는 와중에 사퇴했다. 2009년 취임 후 한차례 연임을 해 2015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KT 사옥 혈압매카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에 압박을 느끼고 사퇴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자금을 겪던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부적절한 기업어음(CP) 발행과 계열사간 자금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삼성(家)의 3대 장손이기도 한 이재현 회장은 CJ그룹을 현재의 위치에 올린 창업주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수 천억원대 비자금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박노수 회백=한국 미술계 거장으로 꼽히는 남정(藍丁) 박노수 회백이 2월2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1927년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예술원 원로회원이자 해방 후 한국화 1세대 작가로 꼽힌다.

◇소설가 최인호='별들의 고향'을 비롯한 무수한 히트작을 내면서 '영원한 청년작가'라는 애칭으로 불려온 소설가 최인호가 9월 25일 별세했다. 향년 68세.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은 고인은 소설 '별들의 고향'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겨울나그네'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박철수 감독='학생부군신위'(1996)로 유명한 박철수 감독이 지난 2월 19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5세. 저예산으로 많은 작품을 만들어 당당히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현했으며, 늘 과격적인 소재와 이야기로 한국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동욱



원세훈



김중훈



이석재



최인호

지구촌 특별

지구촌 진별

◇안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9월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 연합이 압승을 거두며 3연임에 성공했다.

세계금융위기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당파를 초월한 국가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산 로하니=중도 온건 노선을 표방하는 제11대 이란 대통령. 지난 6월 대선에서 중도-개혁 연대의 지지에 힘입어 압승을 거뒀다. 취임 후 서방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화 정책을 펼쳐 핵문제 해결과 국제사회 경제 지원을 끌어냈다. 다만, 강경파의 반발을 잘 다스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여성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파키스탄 10대 여성 인권 운동가. 2012년 하룻길에 탈레반 무장대원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았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11세 때인 2009년 영국 BBC에 파키스탄 탈레반의 잔혹 행위를 폭로한 이후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올해 각종 인권상을 휩쓸었으며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미셸 바체레트 칠레 대통령 후보=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중도좌파 후보. 11월 대선 1차 투표에서 보수 우파 후보인 에벨린 마테이를 상대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으나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



메르켈



유사프자이



차베스



신소라

◇마거릿 대처=전 영국 총리. 지난 4월 87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에서 첫 여성 총리였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1년간 재임하면서 민영화와 사회복지 지출 삭감 등 과감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해 '철(鐵)의 여인'으로 불렸다.

◇우고 차베스=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14년간 집권했으나 암 부병 끝에 지난 3월 5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석유 매장량을 기반으로 번 돈으로 대중영양주의 정책을 밀어붙여 빈민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으나 중산층은 등을 돌리는 등 평가가 엇갈린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전 이탈리아 총리. 끊임 없는 승추문과 비리 의혹에도 3

번이나 총리로 재임했으나 결국 상원의원직과 면책권을 박탈당하며 정치인 생명이 결장타를 맞았다. 방송사인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실형이 확정됐다.

◇보시라이(薄熙来)=전 중국 총칭(重慶) 서기, 중국의 8대 혁명 원로인 보이보(薄一波) 전 부총리 아들로 중국의 핵심 지도자 그룹인 태자당(太子黨)의 선두 주자였다. 한 때 중국 신좌파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았으나 개인 비리 등으로 9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몰수 등 중벌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상소심에서도 패소해 형이 확정됐다.

연남뉴스

황칠나라
DENDRO-PANAX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동반자를 모십니다

061 864 5788

황칠(愛)비법
Hwang Chil Love Secret

명품황칠요리 황칠(愛)비법

황칠(愛)비법 진액은 식품첨가용입니다.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어 쉽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특히 육류나 어류 및 장류의 잡내를 없애주며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다 영양 사과 영양 어느것도 놓칠 수 없는 황칠나라만의 고집!!!

황칠(愛)비법 (주)
산단 청동금 장품용 액면의 100-3